

## 정책 하이라이트

### 1. 지구온난화와 대응방안 - IPCC기후변화 평가보고서

#### ● 개요

-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적인 영향을 다룬 기후변화 위원회(IPCC)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요약본이 4월 6일 발표됨.  
- 금번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와 비교해 폭넓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.
- IPCC는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별도로 출간하였으며,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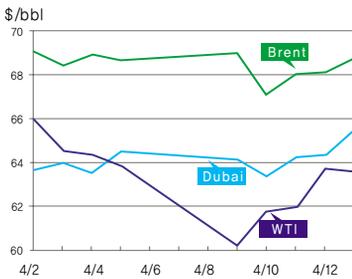
#### ● 세부 내용

- 동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거나 더욱 강력해 지고 농작물 생산성 감소와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한편,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함.  
- 북부 유럽에서는 오히려 추위가 완화되고 수자원 증가로 인한 수력발전량 증가, 농작물 생산 증가와 더불어 어획량이 많아질 것으로 분석됨.

### 주요 내용

- 📍 정책 하이라이트 / 1
- 📍 해외에너지 정책/시장 동향 / 10
- 📍 국내외 정책연구 / 17
- 📍 연구원 동정 / 19

### 국제유가추이



평균가격(2007. 4. 2 ~ 4. 13)

WTI	Brent	Dubai
63.36	68.46	64.14



- 오세아니아는 겨울 폭한이 완화되어 에너지 소비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IPCC가 권고하는 구체적인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
  - 금세기에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과 매연을 줄여야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'2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.
  - ※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약 0.8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2100년까지 3~4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.
  - 배출 저감을 위해 교통수단과 상업 및 주택 효율증진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 사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.
  - 한편,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 방지를 위해 해안지역 건설 활동 중단과 해면보다 1m 높은 곳에 건물을 짓도록 권고하고 있으며,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후 난민 구제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.

### ● 시사점

- 현재 기후변화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고서의 불확실성 논쟁이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음.
- 미국과 영국은 자체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정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.
-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,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(www.unfoundation.org, 2007.3.4), (www.planetark.org, 2007.3.13)

## 2. EU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망

### ● 개요

- EU 집행위원회는 '07년 1월 7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“유럽 에너지정책”이라는 보고서에 담아 발표함.
  -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대응, 에너지안보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주안을 두고 마련됨.

### ● 세부내용

- EU 에너지정책의 주요목표 : '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0% 절감
  - '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% 향상,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%로 확대, 수송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10%로 확대
- 이상의 비전을 실현하고 청정에너지 생산비용의 절감과 저탄소경제체제에서 EU 산업계의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럽에너지기술전략계획(Strategic European Energy Technology Plan)을 '08년까지 수립할 예정
  - '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과 2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 추진
  - '30년까지 저탄소 연료와 탄소배출 방지 및 포집 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도록 하고, 수송부문에서 2세대 바이오연료 및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확대
  - '50년 이후에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하며 4세대 발전기술 및 핵융합 기술의 사용
- EU는 이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저감 비용이 화석연료의 가격에 잘 반영 되도록 하며,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고자 함.
- 또한 EU 집행부는 단일의 에너지시장을 창설하여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려고 함.
  - 그러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한 사업분리에 대한 회원국의 반발과 가스프롬 등 비유럽 국

영기업의 역내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로 단일 시장 창설 및 새로운 유럽 에너지정책의 추진이 용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.

(Energy Economist, 2007.2)

### 3. 카자흐스탄, 러시아와 원자력 부문 협력 확대

#### ● 개요

- 카자흐-러시아 양국 정상은 3월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
- 원자력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는 향후 한국-카자흐 간 원자력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● 세부내용

- 주요 협력 부문으로는 국제 우라늄 농축센터 건립, 원전 건설, 원자로 개발 및 우라늄광 개발 등이 예상되고 있음.(Eurasianet.org 2007.3.20)
  - 국제 우라늄 농축센터는 러시아 앙가르스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우라늄 농축, 핵폐기물 처분, 민수용 우라늄 농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.
  - '02년 러시아 측이 제안했으나 중단됐던 카자흐 발카쉬(Balkhash) 지역에서의 원전 건설이 재추진될 전망
  - 원자로 개발 및 우라늄광 개발을 위해서 '06년 7월, 카자흐-러시아 간 3개 합작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 바 있으며 신형 원자로 개발과 우라늄 농축 및 광산 개발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.
- ※ 카자흐 남부의 부데노프스크(Budyenovsk) 매장지(매장량 규모 25~30만톤)에서 연간 5~6천톤 가량의 우라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부데노프스크에서 생산된 우라늄을 앙가르스크에서 농축하려 하고 있음.

- 카자흐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2위(전체의 15%)에 해당하며 러시아와 합산한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5%에 달함.
- 한국은 '06년 9월, 카자흐와 우라늄 장기도입 MOU를 체결하여 '10년부터 7년간 총 2,350톤 규모의 우라늄 정광을 도입키로 하였으며, 카자흐 내 신규 우라늄광에 대한 공동개발 및 원자로 건설협력을 포괄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.
  - 그러나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우라늄광 개발은 진척되지 않고 있음.
- 한편, 일본은 금년 6월 설립 예정인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기업 아토프롬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위탁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음.(요미우리 신문, 2007.2.21)
  - 이는 일본의 천연 우라늄 도입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.

#### ● 시사점

-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향후 러시아와 카자흐 간 원자력부문 협력이 강화되면 카자흐와 일본의 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- 따라서 한국-카자흐 원자력 협력에 있어 양국 간 관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.
  - 특히, 국제우라늄 농축센터 건립과 아토프롬 사 설립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.

## 4. EU 대표단, 중앙아 외무장관들과 에너지협력 방안 논의

#### ● 개요

- EU 대표단은 3월 27~28일 카자흐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5개 중앙아시아 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EU-중앙아시아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(BBC News, 2007.3.27)

### ● 세부내용

- 이번 회담에는 EU 대표단으로 독일 외무장관(독일은 EU 의장국),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 위원, EU 대 중앙아시아 특별대표 등 3인이 참석하였고,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4개국 외무장관(카자흐, 키르기스, 우즈벡, 타직)과 투르크멘의 외무차관이 참석하였음.
- 이번 회담의 목적은 EU가 준비 중인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(RFE/RL, 2007.3.27)
- 독일이 준비한 대 중앙아시아 전략초안은 2007년 6월 EU 정상회담에 제출되어 승인을 얻을 계획인 것으로 보도됨.(연합뉴스, 2007.3.29)
  - 이 초안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전략적 중요성, EU의 소극적 중앙아시아 협력 정책에 대한 반성, 미국-러시아-중국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경계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 - 또한 '08년까지 카자흐, 키르기스, 우즈벡, 투르크멘 등 4개국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외교관 200명을 보낼 것을 제의하는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치적 접촉 확대를 제안
  - 경제적으로는 '07년~'13년까지 약 7억 유로의 개발자금을 원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.
  - 특히, 에너지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카자흐의 에너지자원을 카스피해, 흑해 및 우크라이나를 통해 EU로 수송하는 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.(RFE/RL, 2007.3.31)
- 한편 이 회담에서는 EU-중앙아시아 간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도 언급되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.

### ● 시사점

-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EU는 에너지공급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협력 강화를 계획중
- EU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중앙아시아 인권문제의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대 중앙아시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.

## 5. 영국의 에너지환경 국제협력 강화 방안

### ● 개요

- 영국정부는 브라운 재무상의 세계은행 ‘청정에너지 투자계획’ 회의연설과 ‘기후변화법’ 초안을 통해 영국의 환경정책과 국제협조 방안을 제시
- 경제성장, 사회정의, 그리고 환경보존이 삼위일체가 되는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및 장기적 에너지환경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
  - 영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도까지 60% 감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까지 26~32%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계획을 시행중

### ● 세부내용

- 탄소배출권거래, 기술개발과 보급, 삼림황폐화 관리,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등의 5가지 장기안정화 목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협력체제의 강화 방안을 제안
-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확립
  - 탄소배출권거래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의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,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것임.
  - 영국정부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에 기초한 세계 배출권거래센터를 런던에 설립할 것을 제안
    - ※'05년 현재 세계탄소시장 규모는 94억 유로 정도이며, 향후 500~1,000억 유로 규모로 성장 예상
-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전파를 위해 선·개도국 정부간 및 민간부문간의 협력강화
  - 영국은 6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에너지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결과를 저탄소기술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.
- 삼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확립
  - 영국은 콩고의 삼림황폐화 방지사업을 시작으로 개도국 환경보존사업을 위하여 8억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

- 세계은행의 세계환경은행화
  - 개발은행들이 참여하여 청정에너지개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적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위험을 줄이고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해야 함.
  - 영국은 세계은행에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개발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\$200억의 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.
- 환경문제에 대한 UN의 정책기능 강화
  - 영국은 4월 UN 안보리에 기후변화를 안전으로 상정할 예정

### ● 시사점

- 영국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EU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, 그리고 기후변화법 초안 발표 등 일련의 선도적 환경정책을 통해 미국,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포스트-2012 감축목표 협상참여를 촉구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됨.
- 한편 유럽의 주요 산업체들은 영국 및 EU의 일방적인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음.
- 또한 영국정부의 핵심정책목표인 탄소배출권시장의 경우, 과거 유럽탄소배출권시장의 실망스러운 운영경험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, 많은 국가들이 사태의 진전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.
- 그러나 영국과 EU의 자발적인 감축목표의 결정이 '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협상 대상국 확대를 촉진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우리도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함.

(GNN, 2007.3.12, 2007.3.13, 2007.3.21)

## 6. 프랑스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견해

### ● 개요

- 4월 프랑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입장을 통해 향후 프랑스 에너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펴봄.

### ● 세부내용

- 여당(집권대중운동연합)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
  -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개인과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함.
  - 신재생에너지 보급,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등을 활성화해야 함.
- 사회당의 세골렌 루와얄 후보
  - 온실가스배출의 주원인은 기업이며,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야 함.
  - 석유회사의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 부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.
  - 공기업인 EDF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하며, 정부는 풍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을 장려해야 함.
- 프랑스민주연합당의 프랑스와 베이루 후보
  - 에너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절실하며,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함.
  - 탄소세 부과로 온실가스배출을 통제하고,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개발에 투자해야 함.
  - 환경부담금 및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세금 부과

(Reuters, 2007.3.29)

## 해외에너지 정책/시장 동향



### 미얀마, 중국으로 가스공급 결정

- 미얀마 정부는 자국의 해안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기로 결정
  - 중국은 벵갈만의 A-1, A-3 가스전으로부터 900km 떨어진 중국국경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의하였고, A-1 가스전의 추정매장량은 133.3십억 $m^3$ , 일일 생산량은 17.6백만 $m^3$ 임.
- 이러한 결정은 민주주의,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임.
  - 미얀마가 보유한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는 주변국들의 활동은 미국이나 EU의 경제제재 효과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.
  - 특히,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수출국일 뿐 아니라 금년 1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정권 비난성명 채택 결의를 거부한 바 있음.

(The Economist, 2007.3.23)



### 미 NSC,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매장량 10조 $m^3$ 으로 예측

-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아시아 담당관(David A. Merkel)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매장량이 10조 $m^3$ 에 이를 것으로 예측
  - Merkel은 3월 15일, 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.
    - ※ 공식적으로 알려진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매장량은 2.9조 $m^3$ (BP, 2006).
  - '05년 투르크멘 정부는 ADB의 지원으로 가스매장량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, 주요매장지인

Dovletabat에만 4.5조m<sup>3</sup>로 전국에 총 6조m<sup>3</sup>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(Eurasianet.org, 2007.3.21)



## 러시아 탄광 폭발사고

- 러시아 서시베리아지역 쿠즈바스 탄전지대에 있는 울야노프스카야(Ulyanovskaya)탄광 지하 560m지점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폭발로 100여명 사망
    - 동 탄광은 대표적인 러시아 철강회사, Evraz Group의 자회사인 유즈쿠즈바스우골(Yuzhkuzbassugol)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.
    - 이 회사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큰 유연탄 생산업체로 연간 생산능력은 5~6백만톤 정도임.
  - 이번 사고는 노후설비와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 의존하는 러시아 석탄 산업특성에 기인하며 안전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유발한 것으로 지목됨.
    - 석탄가격 하락으로 생산 중단되었던 탄광들 중 최근 가격상승으로 생산을 재개하는 탄광의 수가 증가추세이나 안전보다는 생산량 증대에 초점
    - 광부의 월평균임금(\$575)의 약 60~70%가 생산 실적에 대한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구조도 안전소홀의 원인임.
- ※'05년 러시아의 총석탄생산량은 전년대비 6.0% 증가한 298.0백만 톤(세계 총생산량의 5.1% 해당)이며, 석탄 확인매장량은 1,570억톤(세계 총매장량의 17.3% 차지)임.(BP, 2006)

(Reuters, 2007.3.19, 2007.3.20, BP, 2006)



## 이란과 아르메니아 간의 가스관 개통

- 3월 19일 이란-아르메니아간 천연가스관 개통식이 양국 정상 참관 하에 거행되었으며 이는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임.



● 이번 가스관의 첫 구간 개통으로 이란은 매년 약 4억m<sup>3</sup>의 천연가스를 아르메니아에 공급할 예정이다.

- 141km에 달하는 추가 공사가 완공될 경우 가스수송량은 약 25억m<sup>3</sup>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- 양국은 2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에 '92년 합의하였으나 착공은 '04년에 시작됨.

(BBC Arabic, 2007.3.19)



### 미국의 에탄올 생산 확대 노력

● 미국의 '06년 에탄올 생산량은 54억 갤런에 달했으며, 향후 3년 내에 60억 갤런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

● 에너지부는 지난 2월 연간 130백만 갤런의 셀룰로즈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\$3.85억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농림부와 바이오연료 연구기금 및 지원을 위한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음.

- 관련기업들은 셀룰로즈 에탄올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역할의 수행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임.

● 부시 행정부는 바이오연료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\$16억의 기금마련을 모색 중임.

- 연초 고유가와 환경문제 등으로 바이오연료(에탄올, 바이오디젤 등)를 '12년 75억 갤런, '17년 350억 갤런으로 확대사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
● 한편,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증대로 가축사료용 옥수수 수급차질의 양상을 보였고, 일부 식료품 가격도 인상 조짐이 나타남.

- 미국 옥수수 가격은 '06년에만 2배 이상 급등하였고, '07년에도 계속 상승하여 2월 가격은 지난 10년 내의 최고 가격을 기록함.

(Financial Times, 2007.3.28)



## 영국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계획

- 영국 정부는 3월 27일 삼림위원회의 ‘영국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략’을 통해 ’20년까지 목질계 바이오매스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2백만 톤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량을 40만 톤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
  - 이는 25만 가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해당되며 자동차 55만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같은 효과임.
-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전체 에너지 공급의 3%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가 소홀한 삼림지역에 대한 자본투자와 기술지도, 그리고 공급체계에 대한 지원책을 계획 중임.
  - 이를 위해 삼림위원회는 지역개발기구,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약 5~8만 명으로 추산되는 목초지 소유자를 포함한 민간부문과 함께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만들어 갈 계획임.

(GNN, 2007.3.28)



## AGL사, 시카고 탄소배출권거래소(Chicago Climate Exchange) 참여

- 호주 에너지회사인 AGL(Australian Gas & Light)사가 시카고 탄소배출권 거래소(Chicago Climate Exchange)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함.
  - 현재 시카고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톤당 \$3.45에 거래되고 있으며 AGL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 가능
  - 현재 호주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AGL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.
    - ※AGL은 지난 1년 동안 이미 A\$20억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한 바 있으며, 조만간 Macarthur 풍력발전소 건설사업과 Queensland주의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
- 호주정부는 작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검토를 위한 실무반을 설립하여 금년 5월 중 검

토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.

(Sydney Morning Herald, 2007.3.30)



### 일본 전력회사, 탄소배출실적 보고의무화로 경쟁 심화

- 일본에서는 '05년 개정된 지구온난화 대응수단 장려법에 의해 금년 4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어 13,000개의 대규모 에너지 소비업체들은 '06 회계연도의 탄소배출실적을 6월 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함.
- 전력소매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대형 에너지소비업체들의 공급자선택이 가능하며,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량 감축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단위 발전량당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전력회사로 공급선을 전환할 것이 예상됨.
- 탄소배출계수는 전력회사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, '06년 3월 현재 간사이전력은 0.358kg/kWh, 추고쿠전력은 0.66kg/kWh 임.
  -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추고쿠전력, 홋카이도전력, 도호쿠전력 등의 탄소배출계수가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간사이전력, 큐슈전력, 호쿠리쿠전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.
- 이 조치로 발전사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며 원자력발전이나 수력발전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과 신규기업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됨.

(Asahi Shimbun, 2007.3.29)



### 전력가격 인상으로 British Energy 수입 증대

- 영국의 British Energy는 전력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로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문제로

야기된 재정적 어려움 해소

- '06년 41%의 전력가격 상승으로 전력판매수입은 21억 파운드를 기록했는데, 이는 전년 대비 24%가 상승한 것이며 이로 인해 세전이익은 전년의 3.1억 파운드에서 2배 증가한 6.2억 파운드를 기록함.

- 막대한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유지보수 비용과 향후 전력가격의 하락 전망(4월 전력선물가격, 49% 하락)에 따라 작년수준의 배당을 주장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2007.3.13)



### 가스프롬, PNG 공급에 주력할 듯

- 가스프롬은 당분간 LNG보다 PNG 공급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.

- '10년까지 연간 7백만 톤의 러시아산 LNG를 캐나다와 미국 동북부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일명 '발틱 LNG 프로젝트'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

- '야말 LNG 프로젝트' 또한 가스프롬의 내부소식통을 인용하여 LNG 플랜트 건설보다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도
- '쉬토크만 LNG 프로젝트'의 경우도 이 지역 주요매장지의 가스를 Nord Stream 수송관을 통해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

(World Gas Intelligence, 2007.3.28)



### 주간 국제유가 동향

- 4월 첫째 주(4/2~4/5), 국제 현물유가는 이란의 영국해군 억류사태의 해소와 원유재고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정제가동률 하락으로 석유제품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행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유가하락폭은 제한되었음.



- 영국과 이란 간 영국해군 억류에 대한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5일 영국해군 15명이 본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감이 크게 해소되었음.
  - 4일 발표된 미국 주간석유재고통계에 따르면 원유재고는 수입증가로 전주대비 430만배럴 증가하여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음.
  - 한편, 휘발유재고는 미국의 정제가동률 정체와 수입 감소로 전주대비 500만배럴 감소하여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였음.
  - UN 안보리의 추가제재안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강행하며 IAEA와의 협력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, 이란이 이라크 내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제기되어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음.
- 4월 첫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이란의 영국해군 석방과 원유재고 증가 그리고 최근 유가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이란 핵프로그램 강행과 이라크 내 무기지원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과 휘발유 성수기를 앞두고 휘발유재고의 감소가 유가하락을 제한함.
  -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가 4월 6일 발표한 4월 3일 기준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원유(WTI) 선물거래 순매수 규모는 전주대비 66.0% 증가한 66.68백만배럴을 기록하였음.
    - Nymex-WTI 최근월물 가격은 4월 3일 \$64.64로 전주대비 2.7%의 증가세를 기록함.  
(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, 113호)

## 국내외 정책연구

### 1.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인의 인식조사

#### ● 개요

- 대부분의 유럽인은 화석 에너지 소비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또한 온난화 진행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EU 차원의 에너지 관련 공동협력이라고 응답함.

#### ● 세부내용

- 이 조사는 총 27개 EU 가입국의 만 15세 이상인 25,800명을 무작위 추출 하여 '07년 2월9일~15일 간 전화면접으로 실시함.
- 조사 목적
  -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정도 파악
  -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가능한 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인식 평가
  -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럽인의 의지 파악
- 조사 결과
  -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야기했다고 82%가 응답
  - 절약의 습관화와 고효율의 전등 및 냉난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약 72%가 응답하고, 정부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94%가 응답
  - EU 국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제품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92%가 응답
  - 에너지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공동노력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62%가 응답하고, 32%는 자국의 독립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핵에너지는 폐기물과 사고위험으로 10년 내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61%가 응답했고,

- 30%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
- 에너지 공급과 가격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26%가 응답한 반면, 65%는 EU의 공동협력으로 공급 및 가격을 교섭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응답
  - 유럽인은 에너지 이슈에 관한 강력한 연대의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79%가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로 석유 및 가스공급 교란에 대한 비축물량 공동 활용을 제시

(Eurobarometer Survey, 2007.3.5)



## 연구원 동정

### 1. 광주·전남 및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심포지엄(지역에너지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중심으로)

---

- 공동주최 : 에너지경제연구원/동신대학교/광주환경운동연합
- 일자 및 장소 : 4월 20일(금)/김대중 컨벤션센터
- 후 원 : 산업자원부/광주광역시/전라남도/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
### 2. 경기도 및 시·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에너지경제교육 및 산업시찰

---

- 주 최 : 에너지경제연구원
- 일자 및 장소 : 4월 13일(금)/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
- 후 원 : 산업자원부/경기도

### 3. 국제회의 참석

---

- Siberia Energy Congress 참석 및 발표(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, 4/9~14)
- 국제에너지기구 이사회 참석(프랑스 파리, 4/10~13)
- 아-태 지역 에너지안보협력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(일본 동경, 4/16~19)

### 4. 언론 활동

---

- “최근 원유가격 왜 상승하는가?” 기고(4/4, 아시아경제)
- “에너지통계의 선진화를 서두르자” 기고(4/11, 아시아경제)
- “연탄가격 보조금 현행대론 안된다” 기고(4/13, 한겨레)

## 회원제도안내

구분	제공자료(발행주기)	특기사항
국내 일반 회원 (연회비:50만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nergy Insights (격주간)</li> <li>에너지통계월보 (월간)</li> <li>에너지 포커스 (분기)</li> <li>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</li> <li>지역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</li> <li>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</li> <li>Energy Info. Korea (연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편 발송 배포</li> <li>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</li> <li>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</li> </ul>
해외 회원 (연회비:2천달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</li> <li>Northeast Asia Energy Focus (분기)</li> <li>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(연간)</li> <li>Energy Info. Korea (연간)</li> <li>기타 영문보고서 (부정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 우편 발송 배포</li> </ul>
국내 포럼 회원 (연회비:1백만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nergy Insights (격주간)</li> <li>에너지통계월보 (월간)</li> <li>에너지 포커스 (분기)</li> <li>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(분기)</li> <li>에너지경제연구 (반기)</li> <li>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</li> <li>정책연구보고서 (연간)</li> <li>지역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</li> <li>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(5년)</li> <li>세미나 자료 (부정기)</li> <li>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</li> <li>Northeast Asia Energy Focus (분기)</li> <li>Energy Info. Korea (연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편 발송 배포</li> <li>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(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)</li> <li>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</li> <li>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</li> </ul>

● 가입 문의 : 교육홍보팀 (031-420-2281)회원 제도 안내

